

국내 셰어하우스 수요특성 및 영향요인 분석

A Study on the Demand Characteristics and Influence Factors Affecting Shared House in Korea

오 정*
Oh, Jung

최정민**
Choi, Jung-Min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special features and domestic status of the shared-house from the increasing number of single-person households, and also studied demand characteristics of the shared-house targeting young single-person household. Moreover, it found affecting factors of residential inclination on the shared-house with the binary logic model. Some of field research and interviews for the survey were conducted, and the analyzed result from this study as follows: Firstly, the domestic shared-house, introduced between the end of 2012 and early 2013, has been rapidly increased and has some features such as decreasing in housing expenses and increasing in social interaction. Secondly, the demand for shared-house by residential experience of single-person household differs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irdly, the factors that affect residential inclination of shared-house are character types, community life experience, awareness, and need for shared house.

Keywords : Shared House, Single-person Household, Community Living, Demand Analysis

주요어 : 셰어하우스, 1인가구, 커뮤니티 주거, 수요분석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의 가구 유형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1인가구의 급증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2년 기준 국내 전체 가구의 25.4%가 1인가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목할 것은 청년 1인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진다는 점인데, 이 같은 변화는 단순히 인구사회학적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택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에 대한 주택정책적 대응을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 등 원룸형 주택의 공급에만 급급한 나머지 다양한 형태의 1인가구의 라이프스타일이나 이들이 처한 경제적 환경 등 수요를 반영한 주거계획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이와 관련, 1인가구의 주거수요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써 그들의 특성과 주거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주거형태로 최근 셰어하우스가 주목받고 있다. 셰어하우스는 우

리나라보다 1인가구 비율이 높은 유럽 및 일본 등지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주거형태이다. 그러나 국내에는 도입 초기단계로 일반화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최근에는 셰어하우스의 국내 도입 가능성과 선호도 분석, 평면 분석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Seo, Park, Lee & Jo, 2013; Jeong & Mo, 2013; Cho & Choi, 2013) 아직까지 관련 학술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1인가구 증가와 맞물려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국내 셰어하우스의 현황을 조사하고, 잠재수요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20~30대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셰어하우스 수요특성 및 요인 간 영향관계를 분석하여, 수요에 부응하는 셰어하우스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 자료 제공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흐름은 <Figure 1>과 같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내용 및 흐름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셰어하우스 사례조사를 통해 셰어하우스의 현황과 특징을 파악한다. 둘째, 셰어하우스에 대한 인식 및 필요여부, 요구도 등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수요특성을 분석한다. 셋째, 셰어하우스 거주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국내 셰어하우스 현장조사를 통해 실태파악과 더불어 수요분석을 위한 설문지를 개발하고, 셰어하우스의 잠재수요층이라고 할 수 있는 20~30

*정회원(주저자),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과 졸업, 석사
**정회원(교신저자),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주거환경전공 교수,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Jung-Min Choi, Dept. of Architecture, Konkuk Univ., College of Architecture, 120 Neungdong-ro, Gwangjin-gu, Seoul, Korea. E-mail: jmchoi@konkuk.ac.kr

이 논문은 2013년도 건국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이 논문은 2013년도 한국주거학회의 추계학술발표대회에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연구임

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는 2013년 초, 서울에 소재한 운영주체별로 상이한 특성을 가진 대표적인 셰어하우스 3곳¹⁾을 선정하여, 견학 및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였다. 한편, 구체적인 설문조사 방법은, 서울에 거주하는 20~35세 미만의 1인가구를 일대일 대면방식으로 무작위로 표집하여 자기기입식으로 하였고, 예비조사를 토대로 설문지 수정 및 보완과정을 거쳐 2013년 7월 22일~8월 5일에 걸쳐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283부 중 내용이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 최종 280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으며, SPSS 20.0 통계프로그램으로 기술통계 및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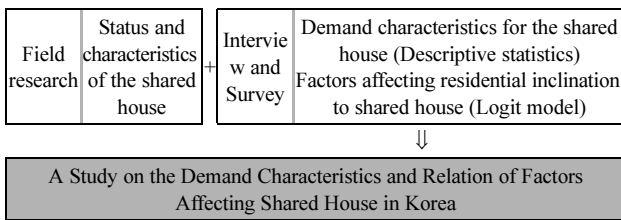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Process Flow

II. 이론적 고찰

1. 셰어하우스(Share house) 개념 및 특징

셰어하우스에 대한 국내 학술적 용어정의는 아직 불명확하다. 일본에서는 셰어하우스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관련 학술연구 또한 많은 편이다. Kobayashi(小林, 2007)는 “가족이 아닌 복수의 거주자가 부엌 등을 함께 사용하면서 하나의 집에 사는 형태”로 정의하였으며, Niwa(丹羽 외, 2005)는 셰어거주라는 용어 대신 ‘공주주거(共住住居)’를 사용하여 “혈연 또는 혼인관계를 갖지 않는 사람들의 동거가 행해지는 주거”로 정의하였다. 이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셰어하우스를, “특별한 인연이 없는 다수의 입주자가 한 집에 살면서 거실, 주방, 화장실 등과 같은 공간이나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주거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거유형으로, 주거의 형태보다는 주거의 방식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한편, 건축법상으로 분류하자면 셰어하우스는 다중주택²⁾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나, 국내 셰어하우스는 다중주택에서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의된 건축물 규모를 아직 가지고 있지 않으며 공유공간을 중심으로 거주자 간의 협동적 생활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다시 말해, 단순히 거주자끼리 공간을 공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 간 사회적, 정서적 공유까지를 포함하

고, 또한 취미나 생활양식이 비슷한 사람들 간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비 절감 등 경제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독립적인 1인가구보다 임대비용은 30~40% 저렴하지만 생활의 만족도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³⁾. 특히, <Figure 2>와 같이 일본에서는 2000년대 초기만 하더라도 셰어하우스는 단순히 누군가와 함께 물건을 공유함으로써 절약할 수 있다는 경제성에서 출발하였다(Share1.0). 이후 2000년대 중반쯤 셰어하우스가 점차 대도시에 널리 보급되고 다양한 형태가 출현함에 따라 셰어하우스에 산다는 것은 집이라는 매개체, 즉 장소를 통해 전혀 다른 사람과 정보나 인맥을 공유할 수 있다는 사회적 부가가치의 창출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Share2.0). 이후 IT기술에 의한 SNS 등의 급속한 확산,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족이라는 유대관계의 재인식 등에 따라 Share2.0에서 잉태된 사회적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또 다른 새로운 가치가 창출된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Share3.0).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일본이 이미 Share3.0의 수준을 논하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Share1.0이나 또는 Share2.0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논거는, 현재 국내의 대표적인 셰어하우스 기업들이 제공하고 있는 건축물 시설과 운영방식이 일본과 흡사하고, 또한 입주자의 구성이나 주생활방식도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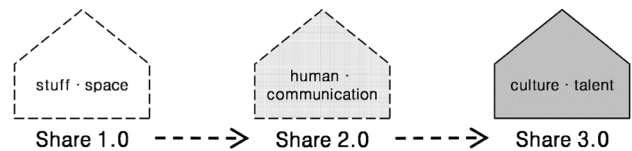


Figure 2. Changes in the Concept of Shared House

2. 관련연구 및 선행연구 고찰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셰어하우스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학술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관련 선행연구로는 셰어하우스와 주거 형태가 비슷한 코하우징(Cohousing)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코하우징은 199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연구(Kwak, Choi & Kwak, 2005; Han & Lee, 2007; Cho, 2011)되어 왔다.

셰어하우스를 직접적 대상으로 다룬 것으로는 일본의 셰어하우스를 소개한 문헌(김진모, 2010), 1인가구의 주거 문제 대안으로 공용공간의 제안에 의한 셰어하우스 연구(Woo & Nam, 2012; Im, 2013) 등이 눈에 띈다. 셰어하우스의 급증에 비해 여전히 학술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1) 국내 대표적인 코하우징 소행주, 서울시 공유기업으로 선정된 사회적 기업 WOOZOO, 일반민간기업이 설립한 보더리스 하우스(Borderless House).

2) 건축법시행령에서는 다중주택을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3층 이하의 연면적 330제곱미터 규모로 정의하고 있다.

3) Woo, S., & Nam, K. (2012).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s for the Urban-life-housing Reflecting Characteristics of Single-person Households - Focused on the Share Housing.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Association. 14(3), 65-68.

특히 본 연구와 같이 셰어하우스 잠재수요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국내 셰어하우스 모형 개발과 연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시도된 연구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

III. 국내 셰어하우스 현장조사

1. 소행주 2호의 000호⁴⁾

2013년 3월, 5인의 미혼 여성이 함께 거주하는 소행주 2호의 000호를 대상으로 방문 및 거주자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소행주는 성미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함께 살기를 희망하는 입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코하우징과 유사한 형태로 거주하기 위해 공간을 계획하고, 설계 및 건설하였다는 점에서 주위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다.

조사대상 세대는 하우스셰어(house-share) 형태로, 소행주 내에서도 1인가구를 위한 유일한 세대이다. 이 세대에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입주하기 10개월 전부터 건축계획 및 커뮤니티 형성과정에 참여하는 등 입주자 참여도를 중요시하였다. 이 세대는 복층형태로, 입주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부층 전체는 공용공간으로, 하부층 전체는 4개의 방으로 구획된 개인 침실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ure 3>. 인터뷰 결과, 입주자인 학생과 직장인들이 함께 어울려 살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1인가구가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는 안전 및 치안문제, 주거비 부담, 외로움 등의 주거문제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a) Public space (upper level) b) Personal space (lower level)

Figure 3. Sohaengjoo #2 (Inner Space)

2. WOOZOO⁵⁾

건축 및 관리자 인터뷰는 2013년 4월, 3호점에서 실시되었는데, WOOZOO는 청년 1인가구의 커뮤니티 단절, 주거환경의 열악, 주거비 부담 등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소셜하우징(social housing) 모델로 만들어진 셰어하우스이다.

4)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소행주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 마을에 위치한 코하우징으로 2010년 시작되어, 현재(2013년 말) 3호까지 완공되었다. 본 셰어하우스는 ‘소행주 2호’의 000호 1개의 단위주호만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면관계상 본문 또는 도표에서 ‘소행주 2호’라고 표기한 것은 모두 소행주 2호의 000호를 지칭한다.

5) WOOZOO는 ‘宇宙’=‘집’, 또한 ‘우주’=‘우리들이 사는 집’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다. 국내 한 사회적 기업을 통해 만들어졌고, 2013년 초 1호점 입주를 시작으로 하여 현재(2013년 말) 서울 종로, 신촌 등 각 지역에 8호점까지 오픈하였다.

스이다. WOOZOO는 개량한옥 및 노후주택 등 기존주택을 집주인으로부터 임대한 후, 이를 리모델링하여 재임대(sub-lease)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Figure 4>. 입주자 구성 및 입주자 간 커뮤니티를 중시하기 때문에 나이는 20~35세로 제한하며,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입주자 매칭(matching)을 중시하여 창업가들을 위한 집(1호),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집(7호) 등 다양한 특성의 셰어하우스가 있다. 입주 신청자는 학생과 직장인 비율이 50:50 정도로 대학생만큼이나 직장인의 수요도 많다고 한다. 운영관리지침으로는 입주자에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제시하되, 각 지점별 입주자들끼리의 거주규칙 및 자치규약을 정하도록 하여 운영하고 있다.



a) Public space b) Room share (2 persons)

Figure 4. WOOZOO #3 (Inner Space)

3. 보더리스 하우스(Borderless House)⁶⁾

2013년 5월 장한평 지점을 방문하여 관리자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는데, 보더리스 하우스는 외국인과 함께 살며 언어를 배우고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는 것에 특화된 셰어하우스로, 주로 대학이나 유학원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대상 셰어하우스는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침실공간을 1인, 2인, 3~4인 등 방의 크기에 따라 몇 가지 형태로 구획하고, 거실과 부엌, 화장실 등의 공간과 가구 및 집기를 공유하는 형태이다<Figure 5>. 외국인과의 거주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룸메이트는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거주하는 형태로 운영방침을 정하고 있다. 입주자 선정은 국적, 성별, 나이 등 기본 인적 사항을 고려하며, 이용자는 보통 어학연수 예정이 있거나 해외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수요가 많으며, 직장인의 비율도 절반정도 된다.



a) Public space b) Room share (2 persons)

Figure 5. Borderless House in Janghanpyung (Inner Space)

6) 국경 없는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Borderless House는 일본 도쿄에 50개 지점이 있으며, 국내 지점은 2013년 초에 처음 입주가 시작되어 현재(2013년 말)까지 10개 지점을 오픈하였다.

이상 현장조사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Comparison of Domestic Shared House Features

Division	Sohaengjoo 2nd	WOOZOO 3rd	Borderless House
Moving Time	2012/ 7 (2nd)	2013/ 2 (1st)	2013/ 1 (1st)
Housing types & characteristics	multifamily rental housing (1 unit plan)	renovation and re-lease the existing rent	re-lease the existing officetel rent with furniture
Housing expenses	deposit 20,000,000won 200,000won/MO	no deposit 350,000won/MO ~the most flexible	deposit 500,000won 400,000won/MO per person 3personshare
Use of space	Public Space (kitchen & living room & restroom) +one person /room share		
Special feature	women-only participate in designing	concept house, age limit	reside with foreigner, age limit
Lease-term	1-year	6-months	available from 1-month
Management	Municipal contract	guideline +municipal contract	guideline +municipal contract

IV. 셰어하우스 수요특성 분석

본 연구는 국내 셰어하우스 수요특성 분석을 목적으로 하며, 세부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1인가구 주거경험 및 주거현황을 파악한다 3) 셰어하우스의 기대효과 및 요구도를 파악한다. 4) 셰어하우스에 대한 인식과 필요 및 거주희망을 파악한다. 이를 위한 설문문항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되며 자세한 항목 다음 <Table 2>와 같다.

Table 2. Survey of Items

Survey items	Division
Residential values and Residential experience	Meaning of home, Residential community , Housing type, Residency personnel, Communal living inconvenience, Difficulties in Independent Living of Single-person Household, Social Obstacle with Dwellers using the same Space
Software aspect of share house	Recognition to shared house, Get to know how the share House, Expected Value by Shared house, Consideration Factors when Determining the Shared house Living , Preferred Type of Shared house by Living Type
Hardware aspect of share house	Preference in Size and Contract, the term of a contract, Pay the amount of possible agreement, Space Configuration of Shared house, The Need for Management at Shared house, Willing to attend a meeting between the residents, Need for shared house, Inclination to Shared house
Lifestyle and personal values	Personality, traveling abroad experience, cohabitation experience, living forms of cohabitation experience
Demographic factors	Gender, Age, Occupation, residential district, Income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Table 3>와 같은데, 전체 대비 여성이 62.1%로 남성보다 약간 많았고, 연령에서는 20~25세가 44.3%, 26~30세가 39.6%, 31~35세가 16.1%였다. 월소득 분포는 절반 이상이 소득이 없거나 1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조사대상자의 52.9%가 학생이기 때문이다.

Table 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280)

Division	N(%)	Division	N(%)
Gender	Male 106(37.9)	Ages	20~25 124(44.3)
	Female 174(62.1)		26~30 111(39.6)
	N/A 88(31.4)		31~35 45(16.1)
Income/MO	Less than 1,000,000won 61(21.8)	Occupation	Students 148(52.9)
	1,000,000won~2,000,000won 67(23.9)		Jobseekers 26(9.2)
	More than 2,000,000won 64(22.9)		Workers 106(37.9)

2. 1인가구 주거생활의 어려움과 장애요인

1) 1인가구가 독립하여 살면서 힘든 사항

<Table 4>은 조사대상자인 1인가구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살면서 힘든 사항을 주거경험을 통해 5점 척도(5점에 가까울수록 ‘매우 힘들’)로 알아본 결과이다. 안전·보안과 이웃 간의 갈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으며, 특히 식사준비 및 가사문제, 경제적 부담 등에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안전·보안상 두려움(p<.000)과 외로움(p<.01)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인가구의 안전·보안과 외로움의 문제가 여성에게는 시급한 현안임을 알 수 있다.

Table 4. Difficulties in Independent Living of Single-person Household

Division	Mean	Gender		t-test
		Male	Female	
Difficulties in eating	3.75	3.66	3.80	-1.047
Greater economic burden	3.46	3.24	3.60	-2.442*
Housework inconvenient problem	3.34	3.23	3.41	-1.245
Loneliness	3.11	2.87	3.25	-2.821**
Security issues	2.89	1.99	3.44	-10.524***
Conflicts between neighbors	2.17	2.00	2.28	-2.022*

*p<.05, **p<.01, ***p<.001

2) 입주자와의 교류장애요소

같은 공간 또는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과 교류하는데 있어서 장애를 느끼는 요소로는 <Table 5>와 같이 시간 부족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공통 관심사 부족, 공간 부족의 순이었다. ANOVA검증을 통해 직업에 따른 차이를

알아 본 결과, 직장인은 학생에 비해 공간과 시간부족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특히 시간 부족(p<.05)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조사대상자들은 전반적으로 입주자 간 교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거주자 교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공간 및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Table 5. Social Obstacle with Dwellers Using the Same Space

Division	Mean	Occupation			F
		Students	Jobseekers	Workers	
Lack of interactiontime	3.70	3.58	3.58	3.91	3.002*
Lack of a common interest	3.36	3.42	3.08	3.35	1.076
Lack of interactionspace	3.23	3.16	3.19	3.34	0.818
Lack of interactionnecessity	2.95	3.01	2.54	2.96	1.780
Not a similar age	2.84	2.71	2.85	3.01	1.771

*p<.05, **p<.01, ***p<.001

3. 셰어하우스 기대효과, 거주결정 요인, 선호유형

1) 셰어하우스에 대한 기대치

셰어하우스를 통해 기대하는 바는 모든 항목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보여 셰어하우스에 대한 1인가구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의 기대하는 바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주거비 및 생활비 감소, 가격대비 넓고 쾌적한 공간, 거주자 간의 교류, 새로운 만남의 기회제공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조사대상자는 셰어하우스가 주거비 부담 및 주거 안정성, 거주자 간 커뮤니티 형성 도모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구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은 남성에 비해 외로움 해소와 심리적 안정감, 특히 보안상 안전에 대해서 큰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이는 앞서의 분석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여성들의 관심이 높은 안전·보안과 외로움의 문제가 셰어하우스 거주를 통해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남성은 새로운 만남의 기회제공에 대한 기대가 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Expected Value by Shared House

Division	Mean	Gender		t-test
		Male	Female	
Reduce housing costs and living expenses	4.07	4.04	4.09	-0.526
Spacious and comfortable space	3.65	3.57	3.70	-1.088
Interactionbetween residents	3.54	3.55	3.53	-0.099
Find new opportunities	3.52	3.76	3.37	3.045**
Relieve loneliness	3.45	3.26	3.56	-2.333*
Safety for security	3.16	2.68	3.45	-5.618***
Peace of mind	3.11	2.93	3.21	-2.157*

*p<.05, **p<.01, ***p<.001

2) 셰어하우스 거주 결정 시 고려사항

셰어하우스 거주 결정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

항 및 희망 거주자 구성원에 대해 물어보았다. 다중응답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인 공간·프라이버시 확보, 입주자 구성 및 관계, 주거비 및 기타관리비용 순으로 나타났다. 같이 살고 싶은 거주자 구성원으로는 취미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지식 및 관계 확장에 도움이 되는 사람 순이었으며, 자신과 전혀 다른 분야나 취미를 가진 사람에 대한 수요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Table 7. Consideration Factors when Determining the Shared House Living

Division	Type	
	Priority	First
	Second	Configuration and tenant relation (60.4%)
	Third	Housing costs and other administrative costs (56.4%)
Family members	First	Sharing hobbies (70.4%)
	Tied for Second	Knowledge and relation to help expand people (63.6%) People with former relation (63.6%)

3) 셰어하우스 거주형태별 선호유형

셰어하우스는 입주자 구성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Table 8>과 같이 3가지 유형을 제시한 후, 유형별 선호 형태를 두 가지 경우 중에서 어느 한 쪽 만을 선택하게 하였다.

Table 8. Preferred Type of Shared House by Living Type

N (%)	Type-1	Division	Type-2	N (%)
100 (35.7)	Gender mixed use	Type1	Male/Female-only	180 (64.3)
201 (71.8)	Reside with foreigners	Type2	Reside with non-foreigners	79 (28.2)
139 (49.6)	Student+Workers	Type3	Student/Workers-only	141 (50.4)

선호하는 거주형태는 유형별로 남/여 전용(64.3%), 외국인과 거주(71.8%), 학생/직장인 전용(50.4%)의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특성에 따른 차이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전용으로 사용하기를 원했으며 이는 유의미한 결과(p<.001)로 나타났다<Table 9>. 또한 학생의 52.7%는 직장인과 함께 사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직장

Table 9. Relation between Preferred Type of Shared House [#1] and Demographic Factors (N=280)

Division	Preferred Type of Shared house [#1], N (%)		Whole	χ ²
	Gender mixed use	Male/Female -only		
Gender	Male	59(55.7)	47(44.3)	106(100.0)
	Female	41(23.6)	133(76.4)	174(100.0)

*p<.05, **p<.01, ***p<.001

인은 57.5%가 직장인 전용의 셰어하우스를 선호하여, 학생과 직장인 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able 10>.

Table 10. Relation between Preferred Type of Shared House [#3] and Demographic Factors (N=280)

Division	Preferred Type of Shared house [#3], N (%)			Whole	χ ²
	Student +Workers	Student /Workers -only			
	Students	78(52.7)	70(47.3)	148(100.0)	
Occupation	Jobseekers	16(61.5)	10(38.5)	26(100.0)	4.218*
	Workers	45(42.5)	61(57.5)	106(100.0)	

*p<.05, **p<.01, ***p<.001

4. 셰어하우스 공간계획 및 관리운영 등

1) 셰어하우스 규모 및 계약기간

선호하는 셰어하우스 규모와 계약기간은 <Table 11>과 같다. 공간 규모는 전반적으로 5인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소규모를, 계약기간은 1년 정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과 직장인 간 차이를 보면, 먼저 학생은 소규모를 선호함에 반해 직장인은 중규모를 선호하는 경향이 눈에 띄고, 계약기간에 있어서는 직장인은 학생에 비해 단기간 보다는 장기 계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더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20인 이상의 대규모 셰어하우스를 선호하는 비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1. Preference in Size and Contract (N=280)

Division	Whole	Occupation			
		Students	Jobseekers	Workers	
Size	Small (less than 5 persons)	210(75.0)	122(82.4)	20(76.9)	68(64.2)
	Medium (5~10)	65(23.2)	23(15.5)	6(9.2)	36(34.0)
	Large (more than 10 persons)	5(1.8)	3(2.0)	0(0.0)	2(1.9)
Contract-Term	6 months	92(32.9)	58(39.2)	12(46.2)	22(20.8)
	1 year	172(61.4)	86(58.1)	13(50.0)	73(68.9)
	2 years	16(5.7)	4(2.7)	1(3.8)	11(10.4)

2) 셰어하우스 내 필요공간

셰어하우스 내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을 5점 척도(5점에 가까울수록 '매우 필요')로 알아본 결과, 세탁실 및 건조실, 학습·독서 및 사무 공간, 창고·수납공간의 순으로 필요도가 높았다. 또한, 거주자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대화·휴식 공간, TV·영화 및 오락 공간, 공동식사 및 파티 공간에 대한 필요도에서도 높은 점수를 보였다<Table 12>. 이를 통해 1인 가구들의 셰어하우스 내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요구도가

높으며, 결과적으로 거주자 간 커뮤니티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류공간의 확보는 셰어하우스 공간계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인구특성에 따른 차이에 있어 통계적 유의미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학생들은 실생활 관련 셰어하우스 내 기본적인 주거공간에 대한 필요도가 직장인에 비해 높았다.

Table 12. Space Configuration of Shared House

Division	Occupation			Mean
	Students	Jobseekers	Workers	
Laundry and drying room	4.68	4.42	4.49	4.59
Learning, reading and office space	3.86	4.04	3.70	3.82
Warehouse & storage space	3.80	3.54	3.78	3.77
Relaxation & conversation	3.74	3.77	3.78	3.76
TV, film and entertainment space	3.51	3.65	3.58	3.55
Dining and party space	3.49	3.31	3.59	3.51
Parking space	3.36	3.42	3.90	3.57
Exercise space	3.22	3.27	3.24	3.23
Specific area for hobbies	2.99	2.58	3.01	2.96
Guest rooms	2.72	2.50	2.94	2.78

3) 셰어하우스 관리운영

셰어하우스 관리운영 업무를 <Table 13>과 같이 구분하고 각 업무별 요구도를 다중응답형식으로 집계하여 보았다. 표와 같이 응답자 95% 대부분은 관리자에 의해 설비 또는 시설유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기본적인 거주규칙이나 거주자간의 갈등문제에서도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관리되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반면, 식사·청소 등 가사서비스 제공이나 거주자 커뮤니티 프로그램 관리에 대해서는 응답비율이 낮게 나타나, 거주자끼리의 자치운영을 더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3. The Need for Management of Shared House

Division	Contrast ratio of total cases
Equipment or facility maintenance	95.0%
Basic living rules	58.9%
Conflicts between residents	54.3%
Providing housework like meals, cleaning, etc	23.6%
Residents Community Programs	18.9%

5. 셰어하우스 인지도

1) 셰어하우스 인식과 필요도

셰어하우스에 대한 인식유무와 필요성에 대한 결과는 <Table 14>과 같다. 먼저, 셰어하우스를 이미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체 280명 중 119명(42.5%)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셰어하우스에 대한 인식과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셰어하우스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대부분 뉴스나 방송, 보도위주의 온라인 매체, 지인과의 대화 또는 입소문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셰어하우스를 잘 알지 못하는 응답자들을 위해서는 셰어하우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이해를 구한 후, 조사대상자 전체에 대해 셰어하우스가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해 설문하였다. 그 결과, 280명 중 229명(81.8%)이 셰어하우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셰어하우스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셰어하우스의 긍정적인 기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국내 청년 1인가구의 셰어하우스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크고, 이와 관련해서 향후 셰어하우스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및 홍보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Table 14. Recognition and Need for Shared House (N=280)

	YES	NO
Recognition to shared house	119(42.5)	161(57.5)
Need for shared house	229(81.8)	51(18.2)

2) 셰어하우스 인지도와 거주방향과의 관계

셰어하우스 인식유무와 필요유무 및 거주방향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검증을 실시하였다. <Table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셰어하우스 인식유무는 필요유무 및 거주방향과의 관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셰어하우스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 셰어하우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빈도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매우 높고, 또한 셰어하우스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거주방향도 높아, 결국 셰어하우스 인지도는 필요성에 대한 의식과 향후 자신의 거주방향도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셰어하우스에 대한 홍보와 정보제공을 통해 인지도를 높일수록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Table 15. Recognition, Need, Residential Inclination (N=280)

	Recognition		Whole	χ^2
	YES	NO		
Need	YES	104(45.4)	125(54.6)	4.371*
	NO	15(29.4)	36(70.6)	
Residential inclination	YES	85(50.0)	85(50.0)	9.960**
	NO	34(30.9)	76(69.1)	

*p<.05, **p<.01, ***p<.001

V. 로짓모형에 의한 셰어하우스 거주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1. 전체 로짓모형 및 추정결과

본 절에서는 이항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셰어하우스 거주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모형의 설명 변수로는 설문조사 항목 중에서 셰어하우스 거주방향과 관련이 클 것으로 생각되는 변수를 선정, 동시 투입하고, 최대우도법으로 모형을 추정하였다. 본 로짓모형을 위한 변수설정은 다음 <Table 16>와 같다.

Table 16. Logistic Model for Analyzing Variable Settings

Division	Expected Variables	Factors Affecting Residential Inclination to Shared house
Lifestyle and personal values	Personality	As there are more an extrovert, there will be more desire for residence. (an extrovert=0, an introvert=1)
	traveling abroad experience	As there are more traveling abroad experience, there will be more desire for residence. (experience=0, No experience=1)
	cohabitation experience	As there are more cohabitant experience, there will be more desire for residence. (experience=0, No experience=1)
Demographic factors	Gender	There may be a difference between genders. (Male=0, Female=1)
	Age	There may be a difference between age. (20~25=0, 26~30/31~35=1)
	Occupation	There may be a difference between Occupation. (Students=0, Jobseekers/Workers=1)
Recognition to shared house	The need	As there are more the need, there will be more desire for residence. (yes=0, no=1)
	The recognition	As there are more the recognition, there will be more desire for residence. (yes=0, no=1)

전체를 대상으로 셰어하우스 거주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라이프스타일 및 개인적 가치관 측면에서 성격유형과 공동생활 경험여부가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며, 인구학적 요인은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셰어하우스에 대한 필요유무와 인지도는 거주방향과 유의미할 뿐만 아니라, 특히 필요유무에 대한 변인은 추정계수 값이 가장 커 셰어하우스의 거주방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7>.

Table 17. Factors Affecting Residential Inclination to Shared House (N=280)

	Variables	Estimated coefficients	p	Exp(B)
Lifestyle and personal values	Personality	0.517*	.097	1.677
	traveling abroad experience	-0.336	.362	0.715
	cohabitation experience	0.749**	.019	2.114
Demographic factors	Gender	0.398	.218	1.488
	Age (1)	0.455	.253	1.577
	Age (2)	0.410	.467	1.507
	Occupation (1)	0.290	.599	1.336
Recognition to shared house	Occupation (2)	-0.266	.524	0.766
	The need	3.780***	.000	43.816
	The recognition	0.942***	.004	2.564
Underlying explanatory model			60.7%	
Analysis of explanatory models			77.5%	
χ^2			102.180	
-2Log likelihood			273.025	

*p<.1, **p<.05, ***p<.01

모형에 투입된 변인별 구체적인 영향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라이프스타일 및 개인적 가치관 관련 변수를 살펴보면 첫째, 성격유형의 경우 내향형보다는 외향형일수록 거주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유형의 승산비⁷⁾ Exp(B)는 1.677로 외향형의 거주 의향에 대한 승산은 내향형보다 1.677배 높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해외여행 경험여부는 경험이 많을수록 거주 의향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현 청년층의 상당수가 이미 해외여행의 경험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공동생활 경험여부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공동생활 경험자일수록 셰어하우스 거주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승산비가 2.114로 공동생활 유경험자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114배 높다⁸⁾.

다음으로 인구학적 요인변수로 사용된 성별, 연령, 직업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셰어하우스 필요여부나 인식여부는 셰어하우스 거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여부의 경우 승산비는 2.564, 변화 백분율로는 156.4로, 셰어하우스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승산이 모르는 사람들보다 156.4% 높다. 앞서 카이검증 결과에서도 보았듯이 셰어하우스를 알고 있는 사람은 셰어하우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고, 나아가 거주 의향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모형의 유의성에 대한 통계적 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가 없고 절편만이 있는 기저모형의 설명력은 60.7%이며, 라이프스타일 및 개인적 가치관, 인구학적 요인, 셰어하우스 인지여부 등 총 10개 변수를 투입한 분석모형의 설명력은 77.5%로 나타나 설명력이 16.8% 향상되었다. 둘째, -2Log우도값의 변화를 통

계량으로 검정해보면 기저모형에서의 -2Log우도값은 375.2이며, 변수를 포함한 실제 분석모형의 -2Log우도값은 273.0로 나타났다. 즉, 독립변수가 투입됨으로써 -2Log우도값이 102.2만큼 감소되었으므로 모형에 투입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영향 요인이라는 것을 뒷받침한다.

2. 학생 및 직장인 구분 로짓모형 및 추정결과

수요특성 분석의 결과와 같이 학생과 직장인은 서로 셰어하우스에 대한 요구도나 필요성에 있어 상이한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셰어하우스 거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그 정도에 있어서 상이할 것으로 판단하여 학생과 직장인으로 샘플을 각각 구분하여 두 개의 로짓모형을 구축하여 추정결과를 상호비교 분석하였다. 다만, 설명변수 중에서 연령은 직업과의 상관성이 높으므로 여기서는 제외하였다.

모형 추정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난 것이 <Table 18>인데, 라이프스타일 및 개인적 가치관에서는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해외여행 경험여부는 거주 의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격유형과 공동생활 경험여부에서 상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학생은 공동생활 경험여부가, 직장인은 성격유형이 셰어하우스 거주 의향에 있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생의 경우 공동생활 유경험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승산비가 3배 정도 높았다. 반면, 직장인은 외향형인 사람들이 내향형인 사람들보다 셰어하우스 거주 의향이 2.8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8. Comparison: Difference of Residential Inclination between Students and Workers

Variables	Students (N=148)			Workers (N=106)			
	Estimated coefficients	p	Exp (B)	Estimated coefficients	p	Exp (B)	
Lifestyle and personal values	Personality	0.027	.951	1.028	1.056**	.029	2.874
	Traveling abroad experience	-0.630	.227	0.532	0.031	.959	1.032
	Cohabitation experience	1.099***	.013	3.000	0.112	.825	1.118
Demographic factors	Gender	0.473	.298	1.605	0.159	.764	1.172
Recognition to shared house	Need	4.303***	.000	73.996	3.017***	.000	20.440
	Recognition	1.267***	.010	3.551	0.217	.669	1.243
Underlying explanatory model		60.8%		60.4%			
Analysis of explanatory models		79.7%		76.4%			
χ^2		63.885		35.216			
-2Log likelihood		134.313		107.132			

*p<0.1, **p<0.05, ***p<0.01

7) 로지스틱 회귀계수의 해석 방법 중 하나인 승산을 이용한 해석은 적용하기도 용이하고 해석의 의미도 명확하므로 가장 많이 쓰인다. 독립변수 x 의 로지스틱 회귀계수 b 를 $\exp(b)$ 로 변환시킨 값은 변수 X 를 1증가시키면 얻어지는 종속변수의 승산의 증가 배수이다. 따라서 $\exp(b)$ 를 승산비(odds ratio: OR)라고 한다(홍세희, 2005).

8) 이를 변화 백분율로 계산해보면 $\Delta\% = 100(-1) = 111.4\%$ 가 되어 공동생활 경험이 있는 사람의 승산이 공동생활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111.4%가 높다. 즉, 공동생활 경험이 없는 사람 100명당 공동생활 경험이 있는 사람 214명이 셰어하우스 거주 의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셰어하우스 필요여부와 인식여부에서도 학생의 경우, 셰어하우스를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또한 셰어하우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셰어하우스 거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장인의 경우 셰어하우스 인식여부는 거주의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필요여부만 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직장인은 학생과는 달리 셰어하우스에 대한 인식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다만 자신이 그 필요성을 느낄 때에만 비로소 셰어하우스에 거주하고 싶은 의향이 높아짐을 뜻한다.

본 연구모형의 유의성에 대한 통계적 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절편만이 있는 기저모형에서 설명변수를 투입했을 때의 모형 설명력 변화는 학생의 경우 약 18.9%, 직장인의 경우 16.0%로 각각 증가하였다. 미세하지만 학생의 모형이 직장인 모형보다 변수 투입에 따른 모형의 설명력이 향상되었다. 둘째, 통계량으로 검정한 -2Log 우도 값의 변화에서도 학생의 경우에 변수가 투입됨으로써 70.9만큼 감소되었고, 직장인의 경우에도 71.9만큼 감소하여 설명변수 투입에 따라 종속변수의 설명 영향요인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준다.

VII. 결 론

본 연구를 통해서 얻은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인가구의 급증과 더불어 셰어하우스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공급물량 또한 급증하고 있다. 현장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신축보다는 임대 후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셰어하우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주거비 감소)와 사회적 효과(거주자간의 교류 증진) 등이 실제 셰어하우스 거주자의 주거선택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거주자 인터뷰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둘째, 설문조사 결과 1인가구의 셰어하우스 수요는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여성의 경우 안전·보안 문제나 외로움 등에서 실제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점이 그대로 셰어하우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은 셰어하우스에서 새로운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기대가 높고, 거주자간의 교류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국내 셰어하우스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높지 않음에 비해, 설문조사 대상자의 셰어하우스에 대한 필요성 응답은 상당히 높아 셰어하우스를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셰어하우스에 대한 필요성과 거주참여에 있어서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셰어하우스 거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의 성격유형과 공동생활 경험유무, 셰어하우스에 대한 인식과 필요도가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 외향형 성격일수록, 공동생활 경험이 많을수록, 셰어하우스를 이미 알고 있거나 그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셰어하우스 거주의향이 높다. 특히, 학생의 경우에는 공동

생활 경험여부가, 직장인의 경우에는 성격유형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공동생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없는 사람보다 셰어하우스의 거주 의향이 3배 정도 높고, 외향형의 직장인은 내향형인 사람보다 2.8배 정도 높았다.

연구분석 결과 제언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셰어하우스의 시설계획적인 측면에서 여성 거주자를 중심으로 하는 시설에서는 안전, 보안시설이 중요하며, 남성을 주로 하는 시설에서는 거실을 중심으로 한 만남의 공유공간이 중요하다. 둘째, 아직 셰어하우스에 대한 국내 인식은 그다지 높지 않다. 그러나 필요성에 대한 잠재수요자의 사회적 공감대와 실제 거주 참여의향이 높은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거주자의 다양한 필요를 반영한 특색 있는 셰어하우스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셰어하우스 이용자 측면에서 공동생활의 경험유무와 성격유형에 따라 셰어하우스 인지 및 필요도가 크게 달라지므로, 셰어하우스의 장점이 잘 발휘되어 향후 하나의 주거유형으로 지속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촉진 매개공간의 계획이나 커뮤니티 촉진 프로그램의 운영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먼저 국내의 경우 셰어하우스가 아직 도입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충분한 샘플에 의거한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되지 못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의 표본수에서도 지역적인 편중을 극복하고 통계적으로도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표본추출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셰어하우스는 현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 이에 편승하여 조사대상 청년 1인가구를 여성 또는 직장인 등으로 더욱 세분화하고, 셰어하우스 실 거주자를 대상으로 셰어하우스가 갖는 사회적 효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함과 더불어, 셰어하우스가 향후 1인가구의 대응주거로써 지속 가능한 주거유형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후속 관련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김진모 (2010). '현대'에 대처하는 일본의 주거, 셰어하우스. *주거*, 10, 14-19.
2. 홍세희 (2005). 이항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서울: 교육과학사.
3. Cho, J. (2011). A Study on Workshop Process for Residents' Participation of the Cohousing Pla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9(7), 81-95.
4. Cho, Y., & Choi, J. (2013). Constructing a database of Japanese Share-House and Extracting Interesting Information of Attribute and Spatial Patterns. *Proceeding of Autumn Annual Conference of KHA*, 25(2), 343-348.
5. Han, M., & Lee, S. (2007). Preference of Suburban Residents on the Suburban Residential Development Applied the Concept of Cohousing. *Journal of Korean*

- Housing Association*, 18(6), 69-81.
6. Im, Y. (2013). *Study to enable the planning of community space in the urban share house: based on the concept of time shar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7. Jeong, D., & Mo, J. (2013). *A Study on preference and space planning of share house*. Proceeding of Autumn Annual Conference of KHA, 25(2), 337-342.
 8. Kwak, Y., Choi, J., & Kwak, I. (2007). Preference of Cohousing according to Sense of Community in Housing Life. *Journal of Korean Housing Association*, 18(4), 37-48.
 9. Seo, J., Park, K., Lee, Y., & Jo, D. (2013). *Single Undergraduate Students Needs For Remodeling Detached Houses to Shared Houses*. Proceeding of Autumn Annual Conference of KHA, 25(2), 183-188.
 10. Shin, Y. (2001). A Study on the Harmony of Privacy and Community in Cohousing. *Journal of Korean Housing Association*, 12(1), 45-46.
 11. Woo, S., & Nam, K. (2012).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s for the Urban-life-housing Reflecting Characteristics of Single-person Households - Focused on the Share Housing.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Association*. 14(3), 65-68.
 12. 丹羽哲也 (2005). 共住住居(シェアハウス)の設計手法に関する研究, 住宅総合研究財団研究論文集, 32, 189-200.
 13. 小林英樹 (2007). 今 `なぜ` `シェア`居住か, すまいろん, 住宅総合研究財団.
-
- 접수일(2014. 1. 22)
수정일(1차: 2014. 3. 18, 2차: 2014. 5. 29)
게재확정일자(2014. 5. 30)